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17 바티칸 미술관

다 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로... 르네상스 명화의 전당



바티칸=정삼필 EU특파원

전남대 광주캠퍼스 교지 넓이(93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44만㎡)에, 웬만한 고등학교 학생 수도 안 되는 인구(800여명)가 사는 바티칸에는 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술관이 있다. 바티칸 미술관(Musei Vaticani)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유일한 미술관이지만 내로라하는 세계 유명 미술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력을 보여준다. 연간 입장객 수도 400만명을 웃돌며 세계 5위 안에 든다.

바티칸 내 교황청의 주인이었던 역대 교황들의 소장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바티칸 미술관이다. 특정 종교를 대표하는 미술관이지만, 미술 서적이거나 인문 교양서, 심지어 TV와 지면 광고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옥같은 명화들을 만날 수 있어 친숙한 느낌마저 든다. 미술관을 다 둘러보기 위해서는 유명 작품이 걸린 성당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티칸 미술관은 교황 율리우스 2세(1503~1513)의 재임 시절 조성된 조각공원이 시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클레멘스 14세(1769~1774)와 피우스 6세(1775~1799)는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건물 구조를 바꾸고 갤러리를 마련해 현재 미술관의 모태를 완성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제작된 지도들이 전시된 지도 갤러리. 북도의 양 옆과 천장을 40여점의 지도가 수놓고 있다.

역대 교황들 소장 예술품 전시

20개 전시공간 전시실 1,400개

년 관람객 400만명 이상 찾아

다.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바티칸 미술관 내 피오-클레멘티노 미술관이 헌정돼 있다.

이후 피우스 7세(1800~1823)가 고대 미술품을, 그레고리 16세(1831~1846)가 에트루리아와 이집트 미술품을, 피우스 10세(1903~1914)가 유대 보석 작품들을 모으면서 소장품 규모를 키웠고 요한 23세(1958~1963) 시절부터 새로 짓기 시작한 건물이 완공되면서 1970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 재개장했다.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 시절이던 2000년에는 새 현관건물을 지어 정보센터, 매표소, 콘퍼런스 룸 등을 확보했다.

소장품을 모은 교황들의 역사가 유구했던 것만큼 바티칸 미술관의 구조도 간단하지 않다. 뮤지엄(Musei)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전시공간만 8개나 된다. 명화들이 보관된 성당이나 회화만을 모아놓은 갤러리 등을 포함하면 20개에 가까운 전시 공간들이 모여 바티칸 미술관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마다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천400여점에 달하는 전시실 숫자가 미술관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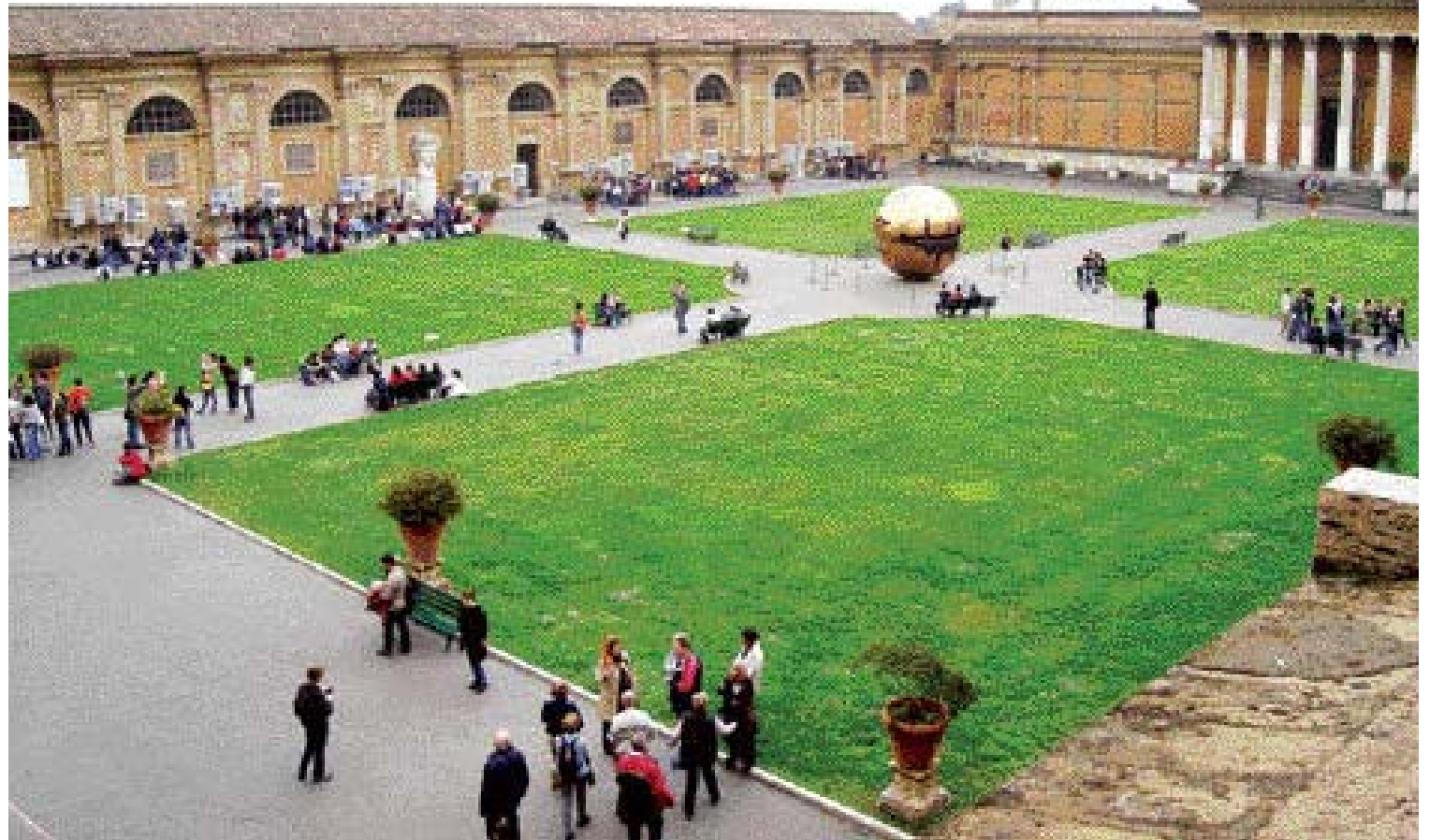
르네상스 대작들이 있는 회화관, 16~17세기 수공예자들이 만든 화려한 양탄자를 모아둔 양탄자 갤러리, 이집트 미술품들을 모아둔 이집트 미술관, 로마 이전의 에트루리아 시대 유물들이 있는 에트루리아 미술관, 천장화로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이태리 국토와 교회 영지 등이 표시된 16세기 지도들이 벽과 천장에 그려진 지도 갤러리 등이 있다.

18개 전시실로 이뤄진 회화관에는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완성 작으로 알려진 '성 히에로니무스', 카라바조의 '입관' 등이 눈길을 끈다. 그레고리우스 13세(1502~1585)의 명에 따라 제작된 지도 40여점이 전시된 지도 갤러리는 100미터가 넘는 북도의 양 옆과 천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모습이다. 이 지도들은 16세기 지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도 이용된다. 라파엘로의 방으로 명명된 4개 중 하나인 '서명의 방'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그리스식 건축물 아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그린 '아테네 학당'이 있다.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곳이 시스티나 성당이다. 성당의 재단의 뒤편 벽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대작 '최후의 심판'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10미터가 넘는 작품의 크기도 크지만 성당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져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가톨릭을 이해하기 위해 이 그림 하나면 충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왼쪽에는 아담과 창조주가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천지 창조'가 자리하고 있다.

바티칸 미술관의 일부는 아니지만 바티칸의 주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에도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많다. 사람들의 손에 닿고 싶은 성모의 발가락이 인상적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비롯, 성당의 웅장한 규모에 맞는 화려한 조각품들이 성당 내부의 금빛 치장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camus@kwangju.co.kr



성 베드로 성당 꼭대기에서 내려다 성 베드로 광장. 바티칸 미술관은 성당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전시실... 교황 뽑는 장소로도 유명

■ 시스티나 성당

바티칸 미술관의 하이라이트는 시스티나 성당(Cappella Sistina)이다. 미술관 작품 감상의 동선이 시스티나 성당을 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스티나 성당을 마지막으로 미술관 투어는 끝이라는 이야기다. 이곳은 미켈란젤로의 벽·천장화 외에 추기경들이 모여 교황을 뽑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교황 식스토 4세(1414~1484)에 의해 지어진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 미술관보다 역사가 더 깊다. 식스토 4세는 성당을 성모승천기념일(8월 15일)에 맞춰 성모에게 바치기 위해 건립했다. 1477년에 착공해 1483년에 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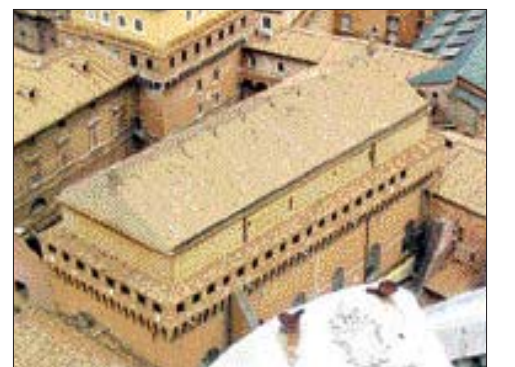
식스토 4세의 조카였던 율리우스 2세는 1508년 성당 내부 장식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일을 맡겼다. 4

년간의 공사가 끝나고 1512년 모든 성인의 날(11월1일)을 맞아 성당은 다시 한번 봉헌 의식을 갖는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최후의 심판'은 그가 60세이던 1535년 클레멘티노 7세의 명을 받아 그리기 시작해 6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0년에 걸쳐 시스티나 성당 내의 모든 프레스코화들은 복원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교황이 선출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시스티나 성당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곳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강론에서 종종 가톨릭 교회에서 시스티나 성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모든 교황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다. 바로 여기서 추기경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 베드로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를 기다렸다.



시스티나 성당의 외관. 15세기에 지어진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대작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등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곳으로 꼽힌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 교황 선출을 받아들였다."

Advertisement for 'Jeonnam IT Job Training School' (전남 IT직업전문학교) with details on cours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Limda' (임대)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contact number 222-0527.

Advertisement for 'Limda' (임대) real estate services, listing various apartment options and contact number 222-4560.

Advertisement for 'Gwangju Kim Jaegyu Jeongchal Academy' (광주김재규경찰학원) featuring a photo of a man speaking and contact information.